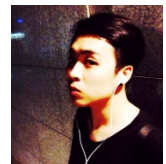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고려대학교 논술고사
“제시문들을 읽고 (Y와) X에 대해 논술하십시오”



넵튠(신주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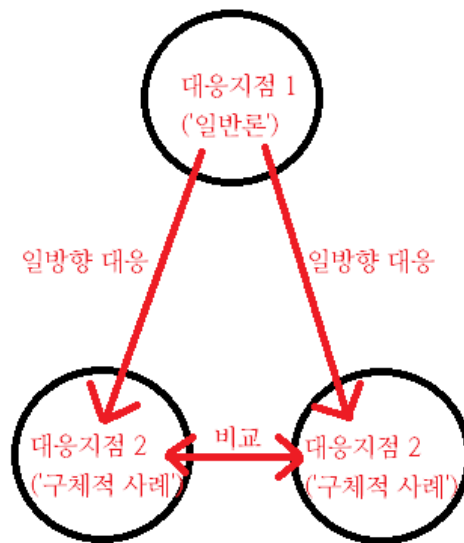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미학과 재학중 (2014~)
오르비 논술팀 소속 강사
오르비 독학재수학원 1, 2, 3관 문과대표 멘토
2015/2016 오르비 논술실록 전체 시리즈 저자

1. 발문 살펴보기

[유형 1] 제시문들(2~3개)을 활용해 '주제어(X)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 논술하시오.

[유형 2] 제시문들(2~3개)을 활용하여 '연결고리(Y)'와 '넓은 주제어(X)'에 대해 논술하시오.

[참고 1] 기존 고려대학교의 '대응 기반 비교' 발문 문항의 제시문 도해



[참고 2] 2015학년도 모의논술 이후 고려대학교의 발문 구성을 통한 제시문 도해

2. 거시적 답안 틀 (Template)

서론(序論): 200~300자(3~5문장) - Modeling(이상적 모델 설계하기)

[서론의 사고과정 및 써야 하는 내용]

- 1) 정의하기 (발문의 X를 정의) / 상관관계 정리하기 (발문의 Y와 X 사이의 관계 설정하기)
- 2) 제시문(2~3개) 통해 이상적으로 X를 도출해내는 모델(글의 기준)을 설계한다.
- 3) 설계한 모델로 X를 도출하는 **요소들 간의 총위(논리적 Sequence)**를 최대한 명료히 설정한다.

본론(本論): 400~500자(6~10문장) - 문제 원인 분석(모델 방해하는 요소 점검)

[본론의 사고과정 및 본론에 써야 하는 내용]

- 1) 제시문의 문제 파악 ('주제어'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 확인)
- 2) 문제의 원인을 적절히 **일반화**해 서술¹ (모델과의 일치/불일치 판단)
- 3) 그 원인 역시 **일반화된 차원**에서 분석에 활용해 서술한다.
- 4) 모델이 가지는 **요소들 간의 총위(논리적 Sequence)**를 고려하여 본론을 서술해야 한다.
- 단순히 병렬적으로 구성하지 말고, 앞서 밝힌 **논리적 Sequence**를 반영하여 서술할 것.

결론(結論): 200~400자(3~6문장) - 제언 후 강화/구체적 방안/실제 사회와 연결

[결론의 사고과정 및 결론에 써야 하는 내용]

- 1) **제언** - 서론에서 제시한 모델을 재-진술 (문제의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 2-1) **강화** - 추상적 차원에서 강화. 모델에서 미진한 부분을 부각/근본적인 부분을 부각)
 - 2-2) **구체적 방안**제시 - 추상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모델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모델의 실현을 방해하는 요소를 없앨 방안을 도입해 '주제어'가 실현되게 함)
 - 2-3) **실제 사회와 연결**하기 - 모델을 실제 사회의 모습과 연결 지어 이해할 수 있다면, 이를 밝힌다.

¹ **Caution** 활용과 평가는 다릅니다. 내가 만든 모델을 기준으로 제시문들을 평가하는 것은 기존의 고려대학교 기출문항의 유형에서 요구했던 기준 제시문에서 사례 제시문들을 향해 논리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문항에서 본인의 답안은 항상 글이 '기준'을 향해있어야 합니다. 각 제시문들은 오롯이 내가 구성해 낸 '기준'을 뒷받침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비유하자면, 제시문들은 내 모델을 뒷받침하는 '참고문헌'입니다. 그러니까 고려대학교에서 제시한 제시문들을 변신/합체하여 만들어낸 나의 강력한 모델을 가지고 다시 불완전한 제시문들을 비판하는 것을 내 논리의 결론으로 삼는 일은 의미 없는 것입니다.

3. 미시적 답안 틀 (Template)

[유형 1] 제시문들(2~3개)을 활용해 ‘주제어(X)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 논술하시오.

서론(序論). [200자~300자 가량 / 3~5문장]

- [1] ‘주제어’를 정의해 서술
- [2] ‘주제어’를 도출해내는 모델(글의 기준)을 제시해 서술
- [3] 모델을 부연하기 위해 각 제시문들을 일반화하여 뒷받침 문장으로 서술 (기존 대응 기반 비교와 **역방향**)

본론(本論). [400자~500자 가량 / 6~10문장]

- [4-1] 1의 문제 상황을 일반화해 서술
- [5-1] 1의 문제 상황의 원인을 일반화된 분석에 활용해 서술 (제시문을 일반화해 활용)
- [4-2] 2의 문제 상황을 일반화해 서술
- [5-2] 2의 문제 상황의 원인을 일반화된 분석에 활용해 서술 (제시문을 일반화해 활용)
- [4-3] 3의 문제 상황을 일반화해 서술
- [5-3] 3의 문제 상황의 원인을 일반화된 분석에 활용해 서술 (제시문을 일반화해 활용)

Tips.

- > 제시문이 2개인 경우는 조금 여유가 있지만, 3개인 경우에는 각 제시문들의 개별적인 사례를 구체적인 차원에서까지 논의할 여유가 없다. 즉, 각 사례의 이야기들을 미시적 차원에서 다루려는 시도는 자칫 내가 써야 하는 문장을 쓰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음을 유의한다.
- > 따라서, 제시문이 2개인 경우 [4]에서는 1~2문장, [5]에서는 2~3문장을 쓰면 됨.
- > 따라서, 제시문이 3개인 경우, [4]에서는 1문장, [5]에서는 2문장을 쓰면 됨

결론(結論). [200~400자 가량 / 3~6문장]

- [6] 문제의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설계한 모델을 재-진술 (추상적 차원에서)
- [7-1] 추상적 차원에서 재-진술한 모델을 강화해 서술
- [7-2] 모델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방안 제시
- [7-3] 모델을 실제 사회의 모습과 연결 지어 이해한 바를 밝힘

Tips.

- > 서론에서 만들었던 추상적 모델은 본론을 통해 보다 풍부해졌을 것이다. 우선 결론에서는 모델을 다시 한번 풍성하게 재-진술해주자
- > 7-1부터 7-3까지 제시되는 세 방식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즉 세 방식 중 두 가지 정도의 루트를 택해서 답안을 서술해도 좋다.

[유형 2] 제시문들(2~3개)을 활용하여 ‘연결고리(Y)’와 ‘넓은 주제어(X)’에 대해 논술향시오.

서론(序論). [200자~300자 가량 / 3~5문장]

- [1] ‘연결고리’와 ‘주제어’를 정의하고 이를 상관관계 서술
- [2] ‘주제어’를 도출해내는 모델(글의 기준)을 제시해 서술
- [3] 모델을 부연하기 위해 각 제시문들을 일반화하여 뒷받침 문장으로 서술 (기존 대응 기반 비교와 **역방향**)

본론(本論). [400자~500자 가량 / 6~10문장]

- [4-1] 1의 문제 상황을 일반화해 서술
- [5-1] 1의 문제 상황의 원인을 일반화된 분석에 활용해 서술 (제시문을 일반화해 활용)
- [4-2] 2의 문제 상황을 일반화해 서술
- [5-2] 2의 문제 상황의 원인을 일반화된 분석에 활용해 서술 (제시문을 일반화해 활용)
- [4-3] 3의 문제 상황을 일반화해 서술
- [5-3] 3의 문제 상황의 원인을 일반화된 분석에 활용해 서술 (제시문을 일반화해 활용)

Tips.

- > 제시문이 2개인 경우는 조금 여유가 있지만, 3개인 경우에는 각 제시문들의 개별적인 사례를 구체적인 차원에서까지 논의할 여유가 없다. 즉, 각 사례의 이야기들을 미시적 차원에서 다루려는 시도는 자칫 내가 써야 하는 문장을 쓰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음을 유의한다.
- > 따라서, 제시문이 2개인 경우 [4]에서는 1~2문장, [5]에서는 2~3문장을 쓰면 됨.
- > 따라서, 제시문이 3개인 경우, [4]에서는 1문장, [5]에서는 2문장을 쓰면 됨

결론(結論). [200~400자 가량 / 3~6문장]

- [6] 문제의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설계한 모델을 재-진술 (추상적 차원에서)
- [7-1] 추상적 차원에서 재-진술한 모델을 강화해 서술
- [7-2] 모델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방안 제시
- [7-3] 모델을 실제 사회의 모습과 연결 지어 이해한 바를 밝힘

Tips.

- > 서론에서 만들었던 추상적 모델은 본론을 통해 보다 풍부해졌을 것이다. 우선 결론에서는 모델을 다시 한번 풍성하게 재-진술해주자
- > 7-1부터 7-3까지 제시되는 세 방식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즉 세 방식 중 두 가지 정도의 루트를 택해서 답안을 서술해도 좋다.

4. 예시답안 (2014 모의 문항)

[넵툼: 예시답안 A]

①은 기술이 사회에 수용되는 조건들을 그리며, ②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 제도를 혁신하는 모습을 묘사한다. 이들은 모두 사회 발전이라는 공공선을 이루기 위한 요건들이다. 상세히 사회 발전의 과정을 그리면 다음과 같다. ①의 기술에 의한 사회 발전은 혁신의 환경이 이미 갖춰진 상태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차원의 문제이나, ②의 제도 개선에 의한 사회 발전은 혁신의 제반을 만들어내는 문제다. 따라서 사회 발전의 과정은 혁신의 발생과 이에 선행하는 사회적 수용 기반이라는 두 단계로 그려진다.

①에 제시되는 기술 측면의 혁신은 분명 사회에 발전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건이다. ①에 등장하는 기술 혁신이 보여준 물질적 패러다임의 전환은 물질적 기반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다만 기술 혁신만을 가지고는 사회 발전을 이룰 수 없다. ①에서 혁신된 기술의 도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로 지적되는 경제, 사회적 요인들, 기득권의 반발, 구성원의 무지는 모두 본질적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정신적 배경의 개선, 그리고 이것이 구체화 된 제도의 변화를 선결(先決)해야만 한다. ②에 등장하는 절목이 오랜 기간 백성들을 핍박해 사회 혁신과 먼 사회 모습을 이루었던 점을 미루어보면 알 수 있다. 제도가 고쳐지지 않았을 때에는 비록 물질적 혁신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

분명 우리는 혁신의 구체적 발생과 수용 기반의 확보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시사하는 것은 수용 여건을 확보하는 제도적 측면의 혁신이다. 궁극적으로 사회 발전은 익숙한 관례에 대한 반발이며 기득권층의 이익에 대한 성찰이 선행하기 때문이다. ②에 드러났듯 이러한 관례의 혁파와 제도 혁신은 뛰어난 개인의 역량과 비판적 지성이 발휘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합리적 폐단을 걷어내고 사회에 합리적 제도의 기반을 가져올 수 있는 성찰적 자세를 가지는 것이 사회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래야만 사회에 혁신의 실마리가 생겨났을 때 이를 실질적인 발전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추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1,041자]

[넵툼: 예시답안 B]

관행은 사회 내 굳어진 인식 체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미덕의 형태를 띠기도 하지만 사회 모순을 가져오는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①은 기술 혁신의 수용을, ②는 제도 혁신을 말하며 공통적으로 사회 발전의 조건들을 그린다. 혁신의 수용의 배경인 제도 개선이 선행하고 이에 구체적으로 물질적 요인이 사회 변화를 촉진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각 제시문에 그려지는 관행의 모습은 이들을 막는 걸림돌로 기능한다.

①에 제시되는 물질적 혁신을 가로막는 것은 비합리적 관행이다. 기술의 도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 중 사회적 가치관 및 위신, 기득권의 반발 및 구성원의 무지의 문제는 모두 사회에 뿌리깊은 비합리성이 구현된 모습이다. 다수에 의한 비합리적 선택은 결국 사회적 손해로 돌아온다. 이러한 관행의 모습은 ②에도 구체적으로 그려진다. ②의 절목은 굳어진 비합리적 관행이며, 이를 고치려는 합리적 노력이 있기 전까지 사회에 악영향을 끼쳤다.

즉 비합리적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어야만 사회를 발전으로 이끌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야기하도록 하는 새로운 관행을 마련해야 한다. 관행은 한번 마련되면 구성원들을 이에 맞게 행동하게 하는 기능을 갖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②의 필자와 같은 뛰어난 개인의 비판적 지성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는 이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입지 또한 필요하다. 그러나 ②의 일반적인 지도층의 모습에 드러나듯 기득권은 보통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곤 한다. 그들이 ②의 필자의 목민관의 자세를 갖추는 것과 같은 자생적 변화를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확실하게는 우리가 비판적 지성의 작용을 통해 해결해야만 한다. 즉 우리는 스스로 비판적 지성을 발휘하는 행동하는 지식인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사회에 미덕이 되는 좋은 관행으로 자리매김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②의 필자가 그랬듯 구체적인 제도의 형태로 기존의 관행을 타파할 수 있고, ①에 제시되는 물질적 혁신을 마추했을 때 이를 합리적 방향으로의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40자]